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만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돌파      제목 : 돌파의 핵심      성경: 마태복음 7장  
5-12절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 (마7:5-12)

도전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도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누가 후회하는가? 왜 후회하게 되는가? 무엇을 후회하게 되는가? 왜 도전하지 않았는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왜 원망하면서 포기했는지, 왜 고집을 부렸는지, 왜 교만했는지, 왜 죄악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후회한다.

왜 도전했는지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비록 도전이 위험할지라도 성공 확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성공 시키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가장 기대하며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

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하며 단호하며 강력하다.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듣는 사람마다 도전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 1.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한다는 말은 겉치레로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일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이 계속해서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외식이 습관화 되면, 자기 눈 속에 들보(나무토막)가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른 채 지낸다. 상당히 불편할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참아낸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불편한 나무토막을 빼어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율법주의는 백해무익한 죄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변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아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것에 크게 관심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가지 말씀에라도 올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게 도전이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릇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더럽다는 뜻이다.

율법이라는 칼날은 자신을 향해 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 율법주의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돌파는 이것이다. 성령충만도 이것이다.

## 2. 거룩한 것을 지켜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것들은 다른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마음 속에 생각도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을 떠나 홀로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다만 날마다 그 옷을 빨아서 세속 중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진정한 돌파는 거룩한 것이다.

## 3.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방향을 보고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길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스터플랜이 이리합니다. 그러니 자원을 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물론 자기가 생각해도 엉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시거나, 강압에 의해 일을 처리하시거나, 쉽게 여감을 받으시거나, 소홀히 여감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때 심사숙고 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공약을 남발해서는 효과가 없다.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줄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 외식을 버리고,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구할 수 있다.

#### 4. 스스로 연구하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자기가 구한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는 스스로 연구할 것이다. 관련 법규부터 살펴며,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살필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도와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뜻이다.

스스로 연구하지 아니하면 돌파하지 못한다.

왜 연구하지 못하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청소년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헛된 꿈에 빠져서 살아간다. 사명에 빠져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돌파하지 못한다.

#### 5. 끊임없이 도전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인생길을 가다보면 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아 놓았을 것이다. 누군가 막아 놓았다. 문이란 어떤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좋은 것, 특별한 것,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무나 들어와 도둑질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다.

문을 두드리어서 누구를 들여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

게 되는지,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왜 그런지, 그래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게 필요없는 것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돌파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 문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서 열릴 때까지 나를 갈고 닦고 자격을 갖추는 것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된다.

## 6. 남을 위해 살아가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살다보면 불합리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 부당한 것도 경험하게 된다. 불편한 것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된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내가 치워주면 다른 사람들은 편리하게 된다.

나도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게 지나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이다.

뭔가 불편한 것을 만나면, 이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 순간이라고 여기면 된다. 그러면 그것에서 사업 아이템이 생긴다.

-남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고객도 생기고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나를 만들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이 돌파의 완성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겨울    제목:겨울에 해야 할 것들    말씀: 사무엘상30장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겔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인생에서 고난의 시절이 겨울이다.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까운 모든 것들을 잃어 버리는 시기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라.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다. 도망가라. 숨어라. 낮게 앞드리라. 나서지 말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께서서 하실 말씀이 있다.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 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희망의 말씀을 붙들라!

9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므로

-뒤처지는 사람들을 돌보라.

- 힘이 많이 빠질 것이다.
- 따르는 자도 많이 빠질 것이다.

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1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12 그에게 무화과 몽치에서 썬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 절대적으로 신뢰를 지키라.
- 목숨으로 신뢰를 지키라.
- 남은 것이 이것 뿐이다.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지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불량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

23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들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선물하라. 관계된 자들에게 선물로 마음을 사서 후일을 도모하라.

-지금 내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드려 마음을 사라.

27 벳엘에 있는 자와 남방 리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28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29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30 훌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31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삼상30:1-31)

